

##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특성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김 선 영<sup>†</sup>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Characteristics of Fur Desig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Mainly Focused on Works after the Year 2000-

Sun Young Kim<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0월 30일), 수정일(1차 : 2008년 12월 16일, 완료일 : 2008년 12월 23일), 개재확정일(2008년 12월 27일)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ur design foun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to examine the status of fur material in the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nd through an analysis of the meaning it attempted to come up with a new viewpoint and form on material for the future fashion design. A literature review was used to explore the kinds and properties of furs. In addi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works that have appeared in fashion collections since the year 2000 was conducted with local and foreign fashion magazines such as Gap, Vogue, and Mode & Mode and other publications related to fashion collections. In the contemporary fashion, the trends of fur design are represented by use of various items, material combinations, application to decorative purposes (like trimmings, details, or accessories), and a wide range of colors and textures available by advanced dyeing and finishing techniques. The aesthetic values intrinsic to fur design are that the expression of conspicuous luxury covers even the qualitative aspect of luxury and adds fashionable images to casual item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fur fashion, by using a variety of artificial furs; the expression of sensual feminine beauty allows the animal and primitive feel characteristic of furs to convert a feminine body into a sensual image of more than a simple biological impulse; and the expression of hybridity presents a new viewpoint through distortions, exaggerations, deviations from the existing constituent forms, or futuristic sensibilities in all elements of fashion design.

**Key words:** Fur, Luxury, Sensualism, Hybridity; 모피, 사치성, 관능성, 혼성성

#### I. 서 론

현대패션에 있어 소재는 빠르게 변화되고 발달하여 패션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소재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3천년 전부터 의복으로 사용되

어지면서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모피이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모피는 원시 시대에 인간이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렵한 동물의 털을 입게 되면서 유래된 방한용 피복 재료로 생존의 차원에서 사용되었으나 사회의 발달과 함께 단순한 물리적인 인체보호목적을 넘어 심리적인 보호차원의 수단으로 변화되어갔다.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bcbgyoung@hanmail.net

모피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독특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 천연색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애호하는 소재이며, 절대적 풍요로움이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한다. 하지만 동물의 수가 감소되고 있고, 숙련공의 임금이 상승되어 점점 고가가 되어가고, 동물보호론자들의 반대로 인해 인조모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조모피의 발달로 인해 모피는 보편화되었으며 많은 종류의 모피소재가 개발되고 여러 품목의 의복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모피에 관련된 연구(김진경, 2005; 김혜경, 1998; 박은정, 2002; 오선숙, 1995; 이수영, 2002; 정성혜, 1994)는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 관련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거나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피소재에 관한 연구만이 이루어져 현대패션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피디자인의 경향이나 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피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고 현대패션컬렉션을 통한 모피디자인의 경향과 미적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모피소재의 현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그 의미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패션디자인에 있어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형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모피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찰하였고,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Gap, Vogue, Mode & Mode 등 국내외 패션잡지 및 컬렉션지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 II. 모피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 1. 모피의 정의와 변천

모피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포유동물의 피부를 벗긴 그대로의 것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 하여 의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강다혜, 2007). 모피는 장모와 단모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모란 길고 뾰족한 털로 가드헤어라고도 하며 광택 있고 강하며 탄력성이 좋아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단모는 모피의 장모 밑에 돋아난 있는 털로 짧고 부드러우며 밀집되어 있어 체온의 발산을 방지하는 보온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단모의 품질로서

모피의 품질이 결정되고 그 값도 정해지기 때문에 단모의 밀생정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모피품질의 결정요인은 장모와 단모의 길이, 밀도, 색상, 감촉, 탄력성 등의 구성배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장모가 충분히 많아 속 털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되고 주로 단모에 대한 장모의 길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수하다(우경아, 2006).

거의 나체로 생활하던 인간의 선조들이 수렵한 동물의 모피를 방한의복으로서 사용한 것이 인간의 모피역사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모피가 의복소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물이나 벽화 등을 통하여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 등의 고대민족이 모피를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김혜경, 1998), 모피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시대에 ‘권력의 상징’으로 취급되었으며 전리품이기도 했다(김진경, 2005).

중세에 있어서는 귀족, 황후, 승려들의 높은 지위의 상징을 나타냈으며 모피는 기능적, 실용적 용도 외에 심미적 욕구와 신분상의 과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회적 신분과 권위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다. 13세기에는 모피상과 모피공의 길드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비잔틴이 모피거래의 중심지로서 황제들은 자기에게 바치는 공물로 모피를 강요할 정도였다. 1294년 포고된 한 법령에서는 ‘귀부인용으로는 아민의 드레스를, 일반서민용으로는 고양이털의 드레스를’ 이란 내용을 담아 일반서민들이 착용할 수 있는 모피의 종류를 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모피의 수요가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애용되었고 일반시민들은 고양이, 토끼, 개 등의 모피에 염색하여 입었는데 대부분 붉은 색으로 염색하여 ‘gules’라 호칭되었다. 또 ‘summer fur’란 여름철에 입는 모피가 아니라 중세 때 멋을 아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여름철에 착용되던 것으로 아민이나 다람쥐 모피가 이용되었다(김혜경, 1998).

모피패션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16세기 르네상스 시기부터 19세기까지 모피는 트리밍으로 헵 라인, 네크 라인, 칼라, 커프스, 기타 가장자리 등을 장식하고, 모자, 스톨, 머프 등으로 사용되었다. 1692년경에는 머프가 유행되어 남자들 사이에서도 애용되었고 부인들은 머프 속에 작은 애완 강아지를 넣어 다니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한 프랑스군의 러시아 원정 때 방한복이 군수용 모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유럽의 전쟁이 가라앉자 모피는 다시 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부유

한 계층 사이에서 패션의 하나로 모피를 모자나 외투의 칼라에 붙이는 것이 유행하였다. 18세기에 중국은 모피사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고, 모피의 감식도 우수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모피가 유럽 전역에 보급되고 가공기술도 발달하였으며 미국이 흥성하면서부터는 그곳에서 산출되는 모피가 유럽에 대량 수출되어 모피의 유행은 중국에서 서양 각국으로 옮겨졌으며 그 지역이 세계의 모피유행의 중심지가 되어 오늘에 이른다(박주영, 박혜원, 2002).

19세기 중엽에는 모피가 지위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패션으로 변화하였으며, 파리 패션계에 모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70년대이다(김진경, 2005). 1886년 미국에서 맹크양식이 성공하였고 나아가 품종개량을 계속하는 동안 1930년 돌연변이에 의한 블루 그레이 맹크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각종 아름다운 털이 맹크가 태어나 맹크는 입는 보석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모피는 새로운 패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맹크는 처음 미국과 캐나다 야생의 것이 사용되었으나 사육에 성공한 뒤에는 개량되어 야생모피에서는 볼 수 없는 색채와 모질을 가진 맹크가 계속 만들어져 더욱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오늘날 모피패션을 이끌고 있다.

## 2. 모피의 종류와 특성

### I) 모피의 종류

모피는 크게 천연모피와 인조모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천연모피에 사용되는 동물은 그 종류가 100여종에 이르나 고급모피를 생산하는 동물은 여우, 맹크, 담비 등 대부분 육식류이며 친칠라, 명주 쥐 등 설치류와 바다표범, 물개, 비버 등 물속에서 사는 기각류도 모피를 생산한다. 천연모피는 방한용 고급 피복재료로서 원료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공공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매우 높고 관리에도 특별한 주의를 해야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인조모피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인조모피는 직물 또는 편성물을 바탕으로하고 여기에 모피의 털과 유사한 합성섬유를 심어서 만들게 되는데 털을 이루는 섬유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털을 심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인조모피가 생산된다(박주영, 박혜원, 2002). 인조모피의 경우 축감이나 자연미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가공기술의 발전으로 천연모피와 거의 흡사한 질감을 나타내게 되었고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과 가격 면에서 유리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의류소재로 쓰이는 대표적인 모피의 종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2) 모피소재의 특성

의복에 있어서 소재는 형태에 영향을 주며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전달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기 때문에 소재에 따라 의복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모피의 종류

종 류	특 성
맹 크 (Mi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죽제비과에 속하며 모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종류</li> <li>-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서식</li> <li>-수컷보다는 암컷의 헤어가 부드럽고 윤기 있으며, 어떠한 공정 과정에도 손상되지 않는 탄력 있고 질긴 헤어가 장점</li> <li>-야생과 양식이 있는데 털은 사육한 것이 훨씬 우수하며 코트, 케이프, 스타킹을 비롯하여 각종 제품에 사용됨</li> <li>-품종개발과 돌연변이로 다양한 컬러가 만들어 지는데, 양식맹크는 붉은색과 뉘색을 제외하고 순백색에서 검정까지 40여종에 이르는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음</li> </ul>
세이블 (S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죽제비과에 속하며 모피 중 가장 최고품에 속함</li> <li>-시베리아, 북미, 일본, 유럽 등에서 서식</li> <li>-색상은 코르크색, 담갈색 등 변화가 많은데 특히 여름에는 검은색, 겨울에는 짙은 갈색을 나타냄</li> <li>-털의 길이는 맹크보다는 길고 여우보다는 짧은데 내구성이 뛰어나고 감촉과 광택이 격조 높고 우아하여 현재도 가장 귀하고 고가로 거래됨</li> </ul>
여 우 (F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과에 속하며 수요가 많아 모피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편</li> <li>-전 세계적으로 분포, 북반부 전반에 걸쳐 생식하는 붉은여우, 북극지방에 생식하는 북극여우, 북부 및 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실버여우가 야생종이나, 야생여우의 수가 감소해 대부분 양식에 의존</li> <li>-털이 길고 호화로운 느낌을 주며 내구성이 있으나 부피감이 커서 full garment보다는 주로 트리밍이나 목도리 용도로 쓰임</li> <li>-색상은 흰색이나 옅은 황색이고 털의 빛깔에 따라 은색여우, 청색여우, 회색, 잡색여우 등 색상별로 구분하여 40여 종이 넘음</li> </ul>

&lt;표 1&gt; 계 속

종 류	특 성
친칠라 (Chinchil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의 여왕이라 불리며 고가모피로 분류됨</li> <li>-남미 안데스산맥, 페루, 볼리비아, 유럽 등에서 서식</li> <li>-털이 길고 비단처럼 촉감이 부드러우며 치밀한 것이 특징</li> <li>-색상은 전체적으로 쥐색, 은색, 베이지색, 블론드색이 있고, 특히 쥐색 바탕에 등 부분이 검은 색으로 짙게 나 있는 것은 스트레트블이라고 하는데 최상급에 속함</li> </ul>
링 스 (Lyn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양이 과로 시라소니로 고가의 모피로 분류됨</li> <li>-중국과 시베리아, 캐나다와 알래스카에 걸쳐 서식</li> <li>-색은 등 부분이 백색에 가까운 모래색에서 적녹색까지 있고 암갈색의 작은 점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 털 빛깔의 변화가 뚜렷함</li> <li>-특히 배부분의 털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 특징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흰털부분이 많으면 품질이 좋고 고가임</li> </ul>
너구리 (Raco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과에 속하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분포</li> <li>-몸의 털이 길고 황갈색이며 등 면의 중앙부와 어깨에는 끝이 검은 털이 많다. 다소 털이 드라이하게 보이는 아메리칸 라쿤과 캐밀색 바탕에 검은 털이 섞인 핀란드 라쿤이 모피소재로 사용됨</li> <li>-다른 모피에 비해 거칠고 내추럴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전 시즌까지는 트리밍용으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 와일드 퍼의 느낌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함께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임</li> </ul>
양 (La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용으로 선호하는 대표적 종류는 카라풀종으로 새끼의 털은 검은 빛을 띠는데 이것이 보자, 코트를 만드는데 많이 이용됨</li> <li>-대표적인 것이 아스트라한(Astrakhan)으로 러시아 남동부 아스트라한 지방 어린 양의 모피로 꼬임, 빛의 방향과 함께 블랙, 브라운, 그레이 등 다양한 자연컬러를 지님</li> </ul>
토끼 (Rabb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로 쓰이는 토끼털은 털이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지만 털이 잘 빠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 모피용으로 집중 사육된 종이 선보이면서 이런 약점을 사라짐</li> <li>-오릴락은 프랑스산 토끼털로 일반 토끼털보다 털이 덜 빠지는 것이 장점으로 1950년대 프랑스에서 가죽이 약한 친칠라를 대신하기 위해 종자를 개량한 것으로 촉감과 색상은 친칠라와 유사하나 가격은 더 저렴함</li> </ul>

모피의류는 여러 동물로부터 얻어지게 되므로 종류에 따라 품질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모피는 매우 치밀한 털의 밀도를 가지면서 털의 길이가 일정하고 광택이 좋으며 부드럽다. 동물의 나이, 건강상태, 포획한 계절에 따라 품질이 다르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암컷의 품질이 우수한데 이는 모질이 좋고 가벼우며 착용감이 좋은 반면에 가용면적의 양이 적어서 섬세한 가공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은애 외, 2000).

모피소재의 특성(김진경, 2005; 김혜경, 1998; 박주영, 박혜원, 2002)은 첫째, 탁월한 보온성이라 할 수 있다. 모피는 털과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털에는 비나 외부에 대한 보호역할을 하는 장모와 밀도가 치밀한 단모로 되어 있는데 단모에 있는 공기층의 단열 효과에 의해서 보온성이 유지된다. 둘째,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 한번 장만하여 손질보관만 잘한다면 다음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내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동물에 따라 내구성의 차이가 있는데 맹크, 담비는 내구성이 높은 반면 친칠라, 토끼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촉감이 탁월하다, 이는 모피의 종류와 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따스함,

푹신함, 부드러움, 가벼움 등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풍부한 색상을 느낄 수 있다. 자연색으로서 모피자체가 가지는 색상은 의복에 있어 개성적이며 특이한 우아함을 더해주며, 또 염색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과 내적가치

#### 1.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

##### I) 아이템의 다양성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모피는 귀족을 상징하며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되어져 입는 보석과 같은 사치품의 대명사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모피는 보석과 같은 소장품이라기보다는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서 다양한 개발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폭넓은 소비자층을 흡수하고 있다. 모피제품의 주 소비층이던 중, 장년뿐만 아니라 30대까지 그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선호함에 따라 디자인 역시 캐주얼한 방향으로 흐르는 등 스타일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1>의 가죽베스트와 함께 연출된 솟팬츠, <그림 2>의 벨벳스웨터와 연출된 링크 롱코트, <그림 3>의 마이크로 미니원피스와 함께 연출된 조끼, <그림 4>의 야성미가 느껴지는 원피스, <그림 5>의 팬츠슈트 위에 연출된 짧은 볼레로 등 다양한 아이템이 나타났다. 과거 모피디자인의 아이템이 겉옷 위주로 사용되거나 종아리 반쯤 오는 전형적인 롱코트 또는 무릎길이의 반코트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재킷길이가 짧아진 형태의 블루종이나 볼레로, 조끼, 스웨터, 원피스, 스커트, 팬츠, 망토 등 모든 아이템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층이 젊어지고 다양해지면서 평범하고 기본적인 스타일보다는 실용적이며 캐주얼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며 타인과 차별화되기 위한 개성추구의 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지구온난화의 결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모피는 전통적인 보온성보다 패션 성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되었고(“모피의 진화”, 2007), 특히 전체적으로 짧아진 길이는 활동적인 젊은 여성들의 귀여운 멋을 살리면서도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덜 수 있어 모피의류의 대중화에 큰 뜻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소재의 콤비네이션

모피는 동물의 털만 가지고 가공 사용하는 모직물이나 털이 없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사용하는 피혁제품과는 달리 모피동물의 생모피를 탈지가공하여 봉제함으로써 완성되는 천연자연제품이라는 소재상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동물생피의 종류, 모양, 크기, 색상에 따라 서로 다른 동물의 형태를 그대로 이

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상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모피들의 패치워크나 모피와 가죽, 모피와 니트, 모피와 테님 등 이질적인 소재들과의 콤비네이션 형태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부풀린 소매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모피를 혼합한 코트로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7>은 서로 다른 모피를 혼합함과 동시에 양쪽이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연출하여 해체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

특히 2007 F/W의 경우 다양한 모피를 혼합하여 화려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연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는데, 펜디(Fendi)는 쇠고급 친칠라를 실버포스, 페르시안 램과 믹스하거나 고트 퍼를 링크와 믹스하고 과감한 불륨, 디자인,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고,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은 아스트라한 과폭스, 라쿤 등을 믹스한 코트로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다(“The Allure of Fur”, 2007). <그림 8>은 고트와 링크를 믹스해 블랙 앤 화이트의 스트라이프를 연출한 것으로 모던하고 패셔너블한 모피디자인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종류의 모피를 더하는 콤비네이션 형태가 나타났고, 또 링크 사이에 또 다른 종류의 모피나 깃털이 더해지거나 서로 다른 길이의 모피를 이용하여 디자인에 간각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그림 9>와 같이 테님소재의 롱코트에 안감으로 모피를 사용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소재와 함께 이용하거나, 자투리 모피를 엮어 만들어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등 모피패션을 대중화하고 보다 젊은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였다.



<그림 1>  
Versus,  
2003 F/W



<그림 2>  
Jean Paul Gaultier,  
1999 F/W



<그림 3>  
Gucci,  
2006 F/W



<그림 4>  
Alexander McQueen,  
2003 F/W



<그림 5>  
Jean Paul Gaultier,  
2001 F/W



<그림 6>  
Ungaro,  
2002 F/W



<그림 7>  
Martin Margiella,  
2002 F/W



<그림 8>  
Fendi,  
2007 F/W



<그림 9>  
Max Mara,  
2001 F/W



<그림 10>  
Jean Paul Gaultier,  
2003 F/W



<그림 11>  
Dolce&Gabbana,  
2007 F/W



<그림 12>  
Martin Margiella,  
2007 F/W

그리고 <그림 10>과 같이 모피와 다른 소재를 이어서 줄무늬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림 11>과 같이 모피코트 위에 망사 소재를 겹치거나, <그림 12>와 같이 모피를 니트와 함께 사용하고 니트 조직처럼 연출한 스웨터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그물 형태나 바둑판의 형태 혹은 술의 형태 등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였다.

### 3) 장식을 위한 요소로 사용

미의 추구를 위한 복식이나 기타 장신구에 있어서의 장식은 당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함은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격이나 사상 표현의 한 수단이며 개성에 따른 창의성을 나타내게 된다. 모피 자체가 갖는 천연의 화려한 색상은 모피디자인에 풍요로움을 선사하였고 어떠한 디자인의 의상과도 잘 어울릴 수 있으며 패션에 무한한 변화성을 갖게 한다. 또 링크, 세이블, 여우, 친칠라, 링스 등 각각의 모피가 갖는 다양

한 질감은 패션디자인의 장식성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모피의 경우 코트나 반코트 등 한 벌의 전체의상에 모피를 사용하거나, 의복에 있어서 트리밍의 일부분만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세시대 때에는 모피의 유한성 때문에 험 라인, 네크라인, 칼라, 커프스, 기타 가장자리 등을 장식하는 트리밍 스타일이 사용되었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부분 외에도 가슴부분만이나 소매부분, 바지단부분 혹은 허리, 가슴, 소매 등에도 장식화 되어 나타났다.

<그림 13>은 중국, 티베트, 몽고, 러시아의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국적, 시대, 스타일에 있어서도 어떠한 정의도 내릴 수 없는 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크리스티앙 디올의 작품으로 소재 역시 다양한 소재가 혼합되어 있으며 모피는 장식을 위한 요소로 사용된 것이다. <그림 14> 역시 원피스 위에 모피소재를 이용한 꽃문양을 애플리케 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이용하였으며, <그림 15>와 같이 모피를 네크라인과 앞 중심, 단 등에 러플로 장식하여 단순한 의상에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그림 16>은 스커트부분에 링크를 덧대어 다른 장식선과 같이 이용한 것이다.

또 의복의 트리밍이 아닌 의복을 이루는 한 구성요소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림 17>은 니트소재의 드레스에 소매부분만을 그레이데이션 효과를 준 긴 모피소재를 이용하여 장식화하고 있으며, <그림 18>은 원피스의 소매와 스커트부분에 모피소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실루엣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모피를 직물처럼 보이게 잘라서 엮는다거나 스캘럽 문양, 장방형, 격자모양 등 패턴화 시켜



<그림 13>  
Christian Dior,  
2002 S/S



<그림 14>  
Dupre Santabarbara,  
2005 F/W



<그림 15>  
TSE,  
2003 F/W



<그림 16>  
Louis Vuitton,  
2002 F/W



<그림 17>  
Jean Paul Gaultier,  
2007 F/W



<그림 18>  
Givenchy,  
2006 F/W



<그림 19>  
Jean Paul Gaultier,  
2007 F/W

장식적 요소로 이용하거나 의복의 일부분에 이용하는 것 외에도 모피의 털을 깎아서 표현하거나 핸드백이나 신발, 모자 등에도 모피를 접목하기도 하는데, <그림 19>와 같이 동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의복이 아닌 액세서리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4) 염색 및 가공기술에 따른 색상과 질감의 다양성

과거 모피소재가 단순히 자연에서 획득된 상태를 유지하여 가공하고 제작되었다면 현대모피디자인은 보다 진보된 기술의 축척으로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의 색상차이를 일정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가공기술의 발달로 보완된 자연색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특히 모질이 좋지 못한 것을 아주 고급모피와 유사하게 만들고 있으며 염색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유자재로 원하는 색을 염색하고 있는 현재에는 다채로운 색상표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모피가 독자적인 패션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 모피를 마치 직물처럼 보이게 모피를 잘라서 엮는다거나 털을 깎아서 마치 무늬가 짜인 듯한 효과를 내는 다양한 텍스처 효과를 내어 모피소재 자체에 디자인성을 가미한 소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0>은 격자무늬모양으로 모피표면을 깎은 것이고, <그림 21>은 링크 자체를 악어가죽의 표면처럼 깎아 마치 실제 악어가죽처럼 느끼게 한 것이다. 또 여우가죽의 표면을 얇게 깎아 악어가죽 모양으로 레이저 커팅을 시도하거나, <그림 22>와 같이 링크를 마치 얼룩말의 무늬처럼 보이도록 깎아 처리하기도 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특히 새로운 가공방법은 최고급 링크를 완벽하게 전공 포장한 듯한 비닐코팅으로 덮어 새로운 질감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림 23>과 같이 비닐소재 위에 모피를 가닥가닥 부착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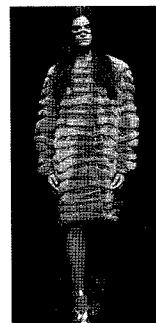
최근 섬유산업기술의 발달로 자연산 모피와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색상, 재질, 무늬 등에 있어서는 자연산 모피보다 더 훌륭한 광택과 촉감을 표현하고 있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그림 24>와 같이 젖은 듯 촉촉한 느낌과 거친 결의 느낌을 가진 퍼 코트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토키털에 왁스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레이와 믹스된 핑크, 그레이와 브라운을 섞은 오렌지 등 다양한 색상으로 젖은 털을 만지는 것 같은 글로시한 모피를 표현하였다. 프라다(Prada)는 모피 모헤어, 스티치, 자카트, 엠보싱 등 독특한 기법의 모피소재를 개발하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모헤어, 알파카, 셀룰랜드 등의 울소재로 만들어진 것들로("What a colorful Fur", 2007) <그림 25>와 같이 모피 모헤어는 인조모피의 윗부분을 깎아 초록, 주황 등으로 염색하여 독특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또



<그림 20>  
Alexander Mcqueen,  
2007 F/W



<그림 21>  
Yves Saint Laurent,  
2007 F/W



<그림 22>  
Givenchy,  
2006 F/W



<그림 23>  
Fendi,  
2003 F/W



<그림 24>  
Louis Vuitton,  
2007 F/W



<그림 25>  
Prada,  
2007 F/W

니트로 찐 가짜 깃털로 모피의 텍스처를 표현하거나 니트를 말아 모피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등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실험정신은 모피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하겠다.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la)는 포스트 푸드 프로덕션(Post Food Production)의 퍼를 사용했는데 모피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죽인 동물의 모피를 사용한 것으로("The Allure of Fur", 2007) 동물보호주의자들의 비난을 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염색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유로운 염색이 가능해지면서 실제 야생동물의 문양을 모방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어 표범, 호랑이는 물론 젯소와 얼룩말 등으로도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모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범주를 확대하여 주었고 또 모피가 패션산업의 한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였다.

## 2.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내적가치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그 내적가치를 과시적 사치의 표현, 관능적 여성미의 표현, 혼성성의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과시적 사치의 표현이다. 사치성은 사전적으로 '값비싸고 풍부하며 안락한 환경과 물품, 사치스런 환경의 탐닉 또는 쾌락,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기분 좋은 것'을 의미한다. 사치는 화려함과 호사, 혹은 대중을 상대로 한 후한 인심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과도함에서는 퇴폐를 조장하는 방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리포베크키, 엘리어트, 2003/2004). 사치성에 관해서는 부의 잉여와 걸모습 그리고 낭비와 관련되어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오랫동안 사유되어 왔고 과거 상류층이나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계급질서의 상징으로 위세의 과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대중적인 사치로 인해 일반 대중 모두가 사치스러운 호사 취미를 누리면서 명품을 소비하는 사회계층의 구성원이 형성되었고, 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치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자기도취적인 사치로서 감성적 사치로 변화발전하고 있다(양숙희, 한수연, 2007).

무엇보다도 패션은 시각적인 요소로써 타인에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렬하게 파악되는 수단으로 자아 및 신분의 표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져 왔고, 의복에서 부와 사치를 과시할 수 있는 세련된 재료 중의 하나로 고급모피를 들 수 있다. 예로부터 모피는 그 희소가치로 인해 사치스럽고 값비싼 피복재료로 여겨졌으며 보석과 같은 사치품으로 과시적 소비

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Maximilian Lewis는 “경 제가 향상되면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사치의 동반자로서 모피가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는바 모피패션은 인간들로 하여금 심각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준다(김혜경, 1998).”고 하였다.

이같이 모피가 사치의 주된 욕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에는 모피가 가지는 탁월한 보온성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질, 자연색의 풍부한 매혹적인 털의 모습 및 내구성과 같은 특성이 있다. 또 대량생산이 아닌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홀륭하게 수행되고 말끔하게 완수된 완성도 있는 작업과 이에 수반되는 장인정신까지 요구하는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사치의 세련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 있어 고가의 천연모피를 이용한 디자인 외에도 천연모피와 흡사한 다양한 인조모피를 이용한 모피디자인들은 모피패션의 대중화와 함께 캐주얼한 아이템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하였다.

둘째, 관능적인 여성미의 표현이다. 관능성은 육감적, 성욕적, 육체적, 자극적, 퇴폐적, 쾌락적, 감각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을 지니며, 성적매력을 발휘하여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이다(이경아, 전혜정, 2005). 모든 의복은 타인 특히 이성의 주위 끌기를 시도하며 착용자의 성적 매력을 더해주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인체는 부정적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며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나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표현이나 자신감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성의 인체를 노출시키는 비치는 소재나 신축성 있고 광택있는 소재 등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도 모피는 관능적인 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모피는 따뜻함, 부드러움, 안락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러한 연상 작용은 모태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유발시키기도 하며, 공공장소에서도 모피를 걸친 사람을 보면 쓰다듬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흥분을 일으키게 하기도 한다. 아울러 모피는 음부를 상징하며 착용자를 동물로 연상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은정, 2002). 또한 모피와 가죽, 비치는 소재 등 다른 소재와 혼합하여 노출과 은폐라는 상반

된 방법으로 관능성의 가치를 강조시키기도 한다.

특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성적 요소가 반영된 여성복은 인체의 노출이나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 또는 색상이나 소재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관능성을 표현하게 된다. 천연의 모피소재가 갖는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색에 따라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긴 털, 풍성함과 같은 모피 특유의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촉감은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게 하였다.

셋째, 혼성성이다. 문화예술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 또한 확장되어 현대패션의 다양한 이미지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 해체와 혼성모방, 절충주의, 다원주의로 특징되는 현대패션에 있어 절충적이고 혼성적인 표현은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이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현대패션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 다양한 외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모피디자인 역시 일반직물과 같이 다루어져 일반적인 실루엣이 아닌 확대와 과장의 추상적이고 비정형적 실루엣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조모피의 개발 및 가공처리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나 현대패션 전반에 나타난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한 경계초월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또한 과시적 사치의 대표적인 소재인 모피는 아이템의 캐주얼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이질적인 소재와 문양 등 소재, 색상, 아이템, 디테일, 트리밍 등 패션디자인의 전 요소에 있어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미래적인 감성 등 자유로운 혼성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IV. 결 롬

과거 원시시대의 경우 모피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복식이었고 인조모피의 개발 등으로 재료의 유효성 한계를 극복한 오늘날까지도 모피는 고급스러움, 섹시함, 여성스러움으로 상징되며 계급의 차별성, 우월

&lt;표 2&gt;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과 내적가치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		내적가치
아이템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트위주의 아이템에서 블루종, 볼레로, 원피스, 스커트, 쇼 팬츠, 베스트 등 패션 성을 강조한 의복의 모든 아이템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됨</li> <li>모피를 이용한 과시적 사치의 대중화적 현상</li> </ul>	
소재의 콤비네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의 의복 아이템에 다양한 종류의 모피를 혼합하여 모피 특유의 원시적이고 관능적 이미지 강조</li> <li>하나의 의복 아이템에 모피와 가죽, 니트, 데님, 망사 등 다양한 소재와의 혼합으로 소재의 혼성성 및 사치성 표현</li> </ul>	
장식적 요소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를 의복 전체에 사용하기보다 소매, 칼라, 헴라인 등 의복의 한부분에만 사용하여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li> <li>의복의 일부분에 러플, 플리츠, 패치워크 등 장식적인 디테일로 사용하여 여성적 이미지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시적 사치성</li> <li>관능적 여성미</li> <li>혼성성</li> </ul>
염색 및 가공기술에 따른 색상과 질감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 특유의 자연색상을 살리거나 염색을 통해 다양한 컬러로 표현됨</li> <li>다양한 가공방법을 통해 직조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냈고, 울소재나 니트를 가공하여 모피와 같은 효과를 나타냄</li> <li>레이저 커터를 이용하여 모피를 악어가죽이나 열룩말 무늬 등 다양한 재질감으로 표현</li> <li>모피가공을 통해 다양한 의복의 아이템 및 실루엣을 표현하여 혼성적이고 과시적 사치 및 관능적인 여성미를 보다 강조</li> </ul>	

성을 느끼게 한다. 본 연구는 모피소재의 종류와 특성을 고찰하고 현대패션컬렉션을 통한 모피디자인의 경향과 미적특성을 분석하여 현대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모피소재의 현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그 의미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패션디자인에 있어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형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피디자인의 경향은 첫째, 아이템의 다양성이다. 과거 코트 위주의 아이템은 짧은 길이의 재킷이나 블루종이나 볼레로, 조끼, 스웨터, 원피스, 스커트, 팬츠, 망토 등 모든 아이템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비층이 젊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실용적이며 캐주얼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며 타인과 차별화되기 위한 개성추구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소재의 콤비네이션이다.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종류의 모피를 혼합하거나, 모피와 가죽, 모피와 니트, 모피와 데님 등 이질적인 소재들과의 콤비네이션 형태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나타낸과 동시에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등 모피패션을 대중화하고 보다 짧은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였다. 셋째, 장식을 위한 요소로 사용되었다. 헴라인, 네크라인, 칼라, 커프스, 기타 가장자리 등을 장식하는 트리밍 스타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모피를 장식화 된 문양으로 패턴화 시켜 이용하였으며, 동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액세서리에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 넷째, 염색 및 가공기술에 따른 색상과 질감의 다양성

이다. 염색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채로운 색상의 표현이 나타났고, 새로운 가공방법에 의해 자연산 모피보다 더 홀륭한 광택과 촉감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질감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모피디자인의 경향에 내재된 그 내적가치는 첫째, 과시적 사치의 표현이다. 모피가 가지는 탁월한 보온성외에도 희귀성, 다양한 재질과 색상, 고도의 완성도 있는 작업과 이를 요구하는 장인정신 등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사치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조모피를 이용한 모피디자인들 역시 모피패션의 대중화와 함께 캐주얼한 아이템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하였다. 둘째, 관능적 여성미의 표현이다. 모피소재가 갖는 자연의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색에 따라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긴 털, 풍성함과 같은 모피 특유의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촉감은 착용자를 동물로 연상하게 하는 등 단순한 생물학적 충동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게 하였다. 셋째, 혼성성의 표현이다. 과시적 사치의 대표적인 소재인 모피는 아이템의 캐주얼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원시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이질적인 소재와 문양 등 소재, 색상, 아이템, 디테일, 트리밍 등 패션디자인의 전 요소에 있어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미래적인 감성 등 자유로운 혼성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하였다.

고급스러움과 사치의 대명사이던 모피는 첨단기술

과 가공법에 따른 인조모피의 등장, 지구온난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소비총의 확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패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모피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대한 넓은 시각과 함께 테크닉으로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여 모피 디자인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보다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다혜. (2007). 현대모피패션디자인의 이미지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경. (2005). 국내 여성모피의류의 색채특성과 선호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애, 김혜경, 나영주, 신윤숙, 오경화, 유혜경, 전양진, 홍경희. (2000). *패션소재 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 김혜경. (1998). 모피의류의 패션변화와 수출산업 육성방안 연구. *복식*, 38, 245-260.
- 리포베츠키 질, 엘리어트 루. (2003). *사치의 문화*. 유재명 역 (2004). 서울: 문예출판사.
- 모피의 진화. (2007, 12. 21). *한국일보*. 자료검색일 2008, 1. 21, 자료출처 <http://news.hankooki.com>
- 박은정. (2002). *아르누보시대의 모피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주영, 박혜원. (2002). 모피소재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7, 85-103.
- 양숙희, 한수연. (2007). 영화의상에 나타난 사치성에 관한 연구. *복식*, 57(4), 81-94.
- 오선숙. (1995). 모피의류의 구매 및 착용실태. *복식문화연구*, 3(1), 109-124.
- 우경아. (2006). 모피디자인과 생산 공정의 이해. *한국의류학회 피복과학분과 추계학술세미나*, 21-27.
- 이경아, 전혜정. (2005). 로맨티시즘 복식의 양식Ⅱ. *복식*, 55(1), 59-72.
- 이수영. (2002). 모피제품의 전략적 아웃소싱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혜. (1994). 한국 모피패션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복식*, 22, 45-59.
- The Allure of Fur. (2007, December). *Harper's Bazaar*, 12, p. 128.
- What a colorful Fur. (2007, November). *Vogue*, 11, p. 202.